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esearch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조 찬 식(Chan-Sik Cho)*

목 차

- | | |
|-------------------------|---------------------|
| 1. 서 론 | 4. 문헌정보학 연구의 내용 분석 |
| 2. 문헌정보학의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1 연구추이 |
| 2. 1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 | 4. 2 연구주제별 동향 |
| 2. 2 연구의 개념적 이해 | 4. 3 연구방법별 동향 |
| 2. 3 문헌정보학의 연구 | 4. 4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 동향 |
| 3. 연구의 배경 | 5. 요약 및 토론 |
| | 6. 결 론 |

초 록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해옴에 따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배경을 살펴본 뒤,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S

As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has developed as an academic discipline, the importance of its research has also been emphasized. In that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research in LIS, provides background of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and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between 1993 and 1997, and, based upon the analysis, explores some perspectives on research in LIS.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1999년 8월 18일

1. 서론

문헌정보학은 일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인 원리를 개발하고 재정립해오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학제성, 종합성, 전문성의 특성을 지닌 문헌정보학은 정보화가 심화되고 인터넷 등의 정보네트워크의 발달과 학문적 발전이 어우러져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회요구에 맞는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발전은 자체적인 이론 개발과 현상 규명을 위한 거듭되는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란 이론을 검증하고 생성해 내는 과정이며 학문 내면적으로 상호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정형화시킴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계속 변화되는 현상들을 설명하여 학문적 영역을 넓히고 심화시키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에서 연구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연구 및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란 문헌정보학의 연구 주제, 방법, 해석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을 가리키며 학문적으로 계속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문경민 1993; 정동열 1993). 더우기 연구 및 연구 방법이란 문헌정보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관한 연구는 내용적 그리고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고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학문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

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를 조사·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연구의 변화 등을 비교·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 관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문헌정보학의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은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된 이래 1985년 전남대학교로부터 문헌정보학과로 과 명칭을 개칭하였고 현재 32개 4년제 대학교와 8개 2년제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 내에서 문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 속해져 왔으며 그 교과목의 경우 문헌정보학의 고유영역 외에도 사회과학적 측면, 인문과학적 측면, 자연(응용)과학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의 타자, 음악감상, 미술감상 등 교양적 과목이 문헌정보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70년대 중반부터는 초록, 색인, 정보검색, 정보처리, 경영 등 사회의 변화에 맞는 학문으로 탈바꿈하여, 현실적이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학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조찬식 1999).

이러한 문헌정보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다

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구본영 1996;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첫째, 문헌정보학은 종래의 도서관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성된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이다. 이는 도서관 자료의 이해를 비롯하여 효과적, 능률적인 이용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현대 개념의 정보의 능률적인 생산과 전달 및 그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의 연구가 결합되어 인간생활에 필요한 문헌·정보의 조직, 축적, 검색, 전달, 이용에 관한 이론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적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둘째, 문헌정보학은 종합적인 학제간의 학문이다. 물론 문헌정보학은 자료조직, 색인초록, 참고봉사 등의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문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특질을 효과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응용)과학들과 연계되어 연구·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특성은 문헌정보학의 분야가 넓어지고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은 전문적 학문(professional discipline)이다. 문헌정보학은 그 연원으로 보나 현실적인 적용성으로 보나 이론과 실체가 어우러지는 전문적인 학문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의 결과가 실제 생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은 그 이론이나 방법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연구주제나 방법의 설정, 그리고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문헌정보학이란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 출발은 늦은 편이나 대학 내의 학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도서관학과 정보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학문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는 종합적 학제간의 학문으로, 현실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학문이라 할 것이다.

2. 2 연구의 개념적 이해

이론이란 현상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일반화이며 모든 학문체계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문의 발전과 변화는 내면적으로 상호연관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형화된 현상들 간의 관계, 즉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론의 중요한 요소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호연관된 명제로 표현되고, 조정과 단순화를 거쳐 학문의 체계적 이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란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고 생성해 내는 과정을 가리킨다(Grover & Glazier 1986). 이론이 설명하는 현상이란 정적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내면적 변화나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이란 계속적으로 검증·검토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동사'적 개념이며 항상 진화의 상태에 있다. 연구란 이러한 현상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재정립하는 체계적이며 통제되고 선형적이며 변증법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독립적이며 상호연관되어 있

는 몇 개의 단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Bailey 1994). 첫째 단계는 연구문제를 선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의 설정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가설에 나타난 변인 측정에 필요한 연구 설계로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측정도구와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셋째 단계는 자료수집의 단계로서 연구설계에 의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수합하게 된다. 넷째 단계는 자료의 기호화 및 분석의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를 양적이든 질적이든 정형화된 기호나 부호화하고 이러한 자료가 주는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료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단계는 다음 연구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슬 체계를 이루게 된다(Kerlinger 1986).

이러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 의미가 커질 수 있다. 첫째, 연구 주제 선정 및 문제의 제기가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연구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로는 설명이 어려운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해나 행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무시하고 실제와 동떨어진 주제의 설정이나 문제의 제기는 연구의 의미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주제와 문제의 제기는 분명하고 애매모호해서는 안되며 선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방법들은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접근하는 방

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설문지 조사방법과 관찰방법은 그 준비과정부터 분석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를 수 있다. 물론 한 연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또 이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 연구에서 쓰이는 연구방법의 이론적 기초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다만 연구편의에 의한 선택이 될 뿐이다.

셋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목적은 이론을 검증하고 생성해 내는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 설명하는 영역이 한정적이라 할 때 연구는 이러한 설명의 영역을 넓히거나 새롭게 규정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이러한 이론의 구축과 발전은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발전과 학문적 발전에 일조할 때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연구란 새로운 현실 문제에 대하여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설명영역을 넓히기 위한 다단계로 구성된 체계를 가리키며, 좋은 연구는 정확한 주제설정 및 문제제기를 필요로 하며,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이론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2. 3 문헌정보학의 연구

하나의 학문으로 문헌정보학은 그 설립이래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발전을 바탕으로 그 영역을 다져왔다. 하나의 학문이 발전하는데 연구의 역할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듭되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이론의 발

전과 실제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에 문헌정보학은 많은 연구를 통해야 만이 학문적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연구가 없는 학문적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학문으로 문헌정보학은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란 한 학문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문분야에서 적용이 된다. 즉, 모든 학문 분야의 발전은 계속되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이며 이러한 다른 학문에서 활용되는 연구의 주제, 방법, 해석 등은 바로 문헌정보학의 문제해결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 학문간의 이러한 연구의 공유는 학문 상호 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다시 연구의 역할과 의미를 크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란 일면 문헌정보학이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결합된 문헌정보학은 종합적인 학제간 학문이며 전문적 학문이다.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발전이란 부단한 연구가 병행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영역, 정의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교류 등은 연구가 활성화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연구란 모든 학문분야에서 조사·관찰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발전시키는 과정인 연구가 문헌정보학에 적용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연구란 문헌정보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개발·적용하여 궁극적으로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가리

키며, 연구의 속성과 다양한 기법들의 이해가 없이는 참다운 문헌정보학의 연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연구의 배경

연구의 결과는 1차 자료로서 단행본, 학술잡지의 논문, 기술보고서, 학위논문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학술잡지는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전형적인 학술적 커뮤니케이션(scholarly communication) 매체이며, 특정 학문 또는 주제분야의 학술논문이 정기적으로 간행됨으로써 최근의 연구현황을 알려주는 정기간행물이다. 이러한 학술잡지는 학회, 협회, 대학, 연구 기관 등에 의해 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회지는 편집출판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잡지 논문은 심사제도(referee)를 통한 객관성, 시간성, 주제의 다양성, 대중성들을 갖추고 있다. 물론 학술잡지 논문이 갖는 주제 분산성의 단점도 있지만 이는 본 논문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잡지 논문에 나타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서지학회 등의 학회지,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법학회 등 문헌정보학 관련학회에서 발행되는 학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도서관협회, 산업기술정보원 등 유관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대학 논문집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논문을 통한 연구의 추이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조사한 연구 중 정동열은 1993년에 개최된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의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위의 3개 학회에서 발간된 학회지에 실린 연구들을 창간호부터 1992년까지 조사하여 연구추이, 주제, 방법, 분석기법 등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란 한 자리에 정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거듭되는 것이다.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살펴보면, 정보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와 학문적 성숙도를 감안해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연구(정동열 1993) 이후 5년 동안의 연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나타난 연구 논문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내에서 주제와 방법이 유사한 서지학회지를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연구(정동열 1993)의 그것과 비교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문헌정보학 연구의 내용 분석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연구논문을 연구추이,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동향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있다.

4.1 연구추이

조사대상이 된 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논문으로서 연대별로 본 분포는 <표 1>과 같다.

논문은 1993년도부터 17.2%, 16.9%, 17.7%, 19.8%의 비슷한 양이 발표되다가 1997년도에 발표량이 28.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학회지가 계간지로 발간되는 1997년도를 기점으로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연구(정동열 1993)의 같은 기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여러 학술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할 것이다.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 신분 및 증감추이는 <표 2>에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도별 연구논문의 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19.3)	23(16.4)	23(16.4)	25(17.9)	42(30.0)	140(100.0)
정보관리학회지	14(14.5)	17(17.6)	19(19.6)	22(22.7)	25(25.6)	97(100.0)
계	41(17.2)	40(16.9)	42(17.7)	47(19.8)	67(28.3)	237(99.9)

단위: 편(%)

〈표 2〉 연도별 연구자의 분포

단위: 편(%)

연구자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교수	35	36	41	46	71	226(81.6)
학생	2	1	3	2	6	14(5.1)
사서	-	4	1	-	1	6(2.2)
기타	5	5	5	9	8	31(11.2)
계	42	26	50	57	86	277(100.1)

*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전체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 저자가 두 부분의 직종을 나타내는 경우는 각각 계산하였음(학생&사서)

연구자중 교수가 22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81.6%를 차지하였고, 기타 연구자가 11.2%, 학생이 5.1%, 사서가 2.2%를 차지하였다. 교수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학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교수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의 구성원은 교수뿐만 아니라 사서들도 가입되어 있으나 사서의 발표가 지극히 저조한 점에서 사서들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은 실무와 이론을 병합한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 경험에 따른 사서들의 연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에 대해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도 활발한 연구 환경 조성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에 속하는 발표자는 연구자로서 연구소의 책임자나 연구원,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속해 있다.

4. 2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주제의 분류는 기존연구에서 사용하였

던 Jaervelin과 Vakkari(1990)의 수정된 분류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표 3〉과 같이 크게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회지 및 정보관리학회지에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는 목록, 분류 및 색인, 정보검색 등을 포함한 정보조직 및 검색 분야에 42.1%를 차지하였고 정보봉사 및 관련활동이 18.5%로 나타났다. 하위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검색이 15.5%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분류 및 색인이 10.3%로 모두 정보촉적 및 검색 분야에 속해있는 주제들이었다.

연도별로 선호된 주제(10%이상)는 1993년도에는 분류 및 색인이 15.4%, 정보검색이 12.5%로 정보조직 및 검색 분야였다. 또한 1993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 계량정보학 분야는 10.3%를 차지하였다. 1994년도의 연구논문 주제를 살펴보면 분류 및 색인이 15.0%, 자동화가 12.5%, 정보검색과 참고 정보봉사가 각각 10.0%를 차지하여 정보조직 및 검색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에는 정보검색이 19.5%로 가장

〈표 3〉 연도별 연구주제 동향

단위: 편(%)

주제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문헌정보학일반	-	4(10.0)	4(9.8)	5(10.6)	7(10.6)	20(8.6)
전문직	1(2.6)	-	-	2(4.3)	4(6.1)	7(3.0)
도서관사/전적사	-	-	2(4.9)	-	2(3.0)	4(1.7)
저작권	1(2.6)	-	-	1(2.1)	1(1.5)	3(1.3)
연구방법론	2(5.1)	-	-	-	-	1(0.4)
정보이론	1(2.6)	1(2.5)	1(2.4)	1(2.1)	1(1.5)	5(2.1)
문헌정보학교육	1(2.6)	-	1(2.4)	-	3(4.5)	5(2.1)
서지학	3(7.7)	2(5.0)	5(12.2)	3(6.4)	1(1.5)	14(6.0)
체제서지학	-	-	1(2.4)	-	-	1(0.4)
분석서지학	3(7.7)	2(5.0)	4(9.8)	3(6.4)	1(1.5)	13(5.6)
정보봉사 및 관련활동	10(25.7)	9(22.5)	8(19.3)	6(12.7)	10(15.1)	43(18.5)
행정 및 경영	2(5.1)	-	1(2.4)	5(10.6)	4(6.1)	12(5.2)
자료관리	1(2.6)	1(2.5)	3(7.3)	1(2.1)	2(3.0)	8(3.4)
장서개발	1(2.6)	-	1(2.4)	-	-	2(0.9)
참고 정보봉사	3(7.7)	4(10.0)	1(2.4)	-	1(1.5)	9(3.9)
이용교육/독서지도	-	1(2.5)	-	-	-	1(0.4)
열람 및 대출	-	-	-	-	-	-
건물 및 비품	-	-	-	-	-	-
협동체제	-	1(2.5)	1(2.4)	-	2(3.0)	4(1.7)
기타봉사 및 활동	3(7.7)	2(5.0)	1(2.4)	-	1(1.5)	7(3.0)
정보조직 및 검색	13(33.4)	20(50.0)	17(41.4)	21(44.6)	27(40.9)	98(42.1)
목록	1(2.6)	2(5.0)	3(7.3)	5(10.6)	5(7.6)	16(6.9)
분류 및 색인	6(15.4)	6(15.0)	2(4.9)	7(14.9)	3(4.5)	24(10.3)
정보검색	5(12.8)	4(10.0)	8(19.5)	8(17.0)	11(16.7)	36(15.5)
자동화	1(2.6)	5(12.5)	3(7.3)	1(2.1)	5(7.6)	15(6.4)
정보유통 및 배포	-	3(7.5)	1(2.4)	-	3(4.5)	7(3.0)
이용 및 이용자	2(5.1)	1(2.5)	2(4.9)	5(10.6)	6(9.1)	16(6.9)
계량정보학	4(10.3)	2(5.0)	-	2(4.3)	1(1.5)	9(3.9)
기타관련분야	1(2.6)	1(2.5)	1(2.4)	1(2.1)	3(4.5)	7(3.0)
계	39(100.3)	40(100.0)	41(99.7)	47(99.8)	66(99.8)	233(99.6)

높았으며, 1996년도에는 정보검색이 17.0%, 분류 및 색인이 14.9%, 문헌정보학 일반, 행정 및 경영, 목록, 이용 및 이용자가 각각 10.0%를 차지하여 비교적 연구주제의 고른 성향을 보여주었다. 1997년에는 정보검색이 1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 일반이 10.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의 주제는 '정보조직 및 검색'이 단연 앞섰으며 그 중에서도 1993년, 1994년에는 '분

류 및 색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였으나 1995년부터는 '정보검색'이 연구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것은 인터넷과

전자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구주제와 연구자 집단간의 비교분석

단위: 편(%)

주제	교수	학생	사서	기타	계(%)
문헌정보학일반	26(11.4)	2(14.3)	-	3(9.1)	31(11.0)
전문직	8(3.5)	-	-	-	8(2.8)
도서관사/전적사	4(1.7)	-	-	-	4(1.4)
저작권	3(1.3)	-	-	-	3(1.1)
연구방법론	2(0.9)	-	-	-	2(0.7)
정보이론	4(1.7)	1(7.1)	-	1(3.0)	6(2.1)
문헌정보학교육	6(2.6)	-	-	-	6(2.1)
서지학					
체계서지학	1(0.4)	-	-	-	1(0.4)
분석서지학	11(4.8)	1(7.1)	-	1(3.0)	13(4.6)
정보봉사 및 활동					
행정 및 경영	19(8.3)	-	1(20.0)	1(3.0)	21(7.5)
자료관리	8(3.5)	-	-	-	8(2.8)
장서개발	1(0.4)	-	-	1(3.0)	2(0.7)
참고 정보봉사	8(3.5)	-	1(20.0)	-	9(3.2)
이용교육/독서지도	1(0.4)	-	-	-	1(0.4)
열람 및 대출	-	-	-	-	-
건물 및 비품	-	-	-	-	-
협동체제	4(1.7)	-	-	-	4(1.4)
기타봉사 및 활동	6(2.6)	1(7.1)	-	1(3.0)	8(2.8)
정보축적 및 검색					
목록	16(7.0)	-	1(20.0)	1(3.0)	18(6.4)
분류 및 색인	19(8.3)	2(14.3)	-	4(12.1)	25(8.9)
정보검색	32(14.0)	7(50.0)	-	11(33.3)	50(17.8)
자동화	11(4.8)	-	1(20.0)	5(15.1)	17(6.0)
정보유통 및 배포	9(3.9)	-	-	-	9(3.2)
이용 및 이용자	14(6.1)	-	1(20.0)	2(6.1)	17(6.0)
계량정보학	8(3.5)	-	-	1(3.0)	9(3.2)
기타관련분야	8(3.5)	-	-	1(3.0)	9(3.2)
계	229(99.8)	14(99.9)	5(100.0)	33(99.7)	280(99.7)

*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전체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 저자가 두 부분의 직종을 나타냄으로 각각 계산하였음(학생&사서)
 *** 역자는 저자로 간주하지 않았음

아울러 <표 4>는 연구주제와 연구자 집단별로 교차분석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 학생, 사서 및 기타연구자들이 많이 선정한 주제(10%이상)는 정보축적 및 검색 중에서도 '정보검색'이 17.8%로 1순위, 문헌정보학 일반이 11.0%로 2순위로 나타났다.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교수가 가장 선호하는 주제는 정보검색과 문헌정보학 일반으로서 각각 14.0%와 11.4%를 나타내었다. 학생이 1순위로 선호하는 주제도 정보검색으로 학생이 발표한 전체 논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보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헌정보학 일반과 분류 및 색인으로 각각 14.3%를 나타내고 있다. 사서의 연구는 미진하였는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단지 5편의 논문만을 발표하였다. 기타 연구자들은 정보검색, 자동화, 분류 및 색인 분야에 각각 33.3%, 15.1%, 12.1%로 공통적으로 정보검색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4. 3 연구방법별 동향

연구방법의 유형은 기존연구에서 이용한 10가지 방법 중에서 한편도 발견되지 않은 운영연구와 서지학적 연구방법을 제외한 8가지 유형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의 결과를 보면 전체 423편의 논문 중에서 문헌연구가 112편으로 약 26.5%를 차지하였고, 사례(75편), 시스템 분석/설계(73편), 서베이(46편)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문헌연구는 해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방법이지만, 사례연구, 시스템 분석/설계, 서베이 연구 등은 기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가 매일의 상황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급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 발생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비교·평가하고 분석·설계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표 5> 연구방법 추이

단위: 편(%)

연구방법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역사적 연구	4	3	14	7	4	32(7.6)
실험연구	4	3	3	12	7	29(6.9)
서베이 연구	7	6	8	10	15	46(10.9)
사례연구	10	13	13	10	29	75(17.7)
평가연구	3	5	11	7	5	31(7.3)
문헌연구	18	17	23	15	39	112(26.5)
계량정보학적연구	8	7	2	1	7	25(5.9)
시스템 분석/설계	6	15	13	8	31	73(17.3)
계	60	69	87	70	137	423(100.1)

* 복수의 연구방법 사용시 개별적 계산으로 전체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표 6〉 연구자와 연구방법간의 비교분석

연구방법	단위: 명(%)				계(%)
	교수	학생	사서	기타	
역사적 연구	32	1	-	1	34(6.9)
실험연구	25	1	-	9	35(7.1)
서베이 연구	39	1	1	5	46(9.3)
사례연구	74	4	2	10	90(18.1)
평가연구	23	2	1	8	34(6.9)
문헌연구	120	8	2	6	136(27.4)
계량정보학적연구	23	2	-	3	28(5.6)
시스템 분석/설계	72	5	2	14	93(18.8)
계	408	24	8	56	496(100.1)

다음의 〈표 6〉은 이러한 연구방법 추이와 연구자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6〉의 연구자와 연구방법의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교수는 문헌연구(120편)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사례연구(74편)와 시스템 분석/설계(72편)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문헌연구(8편), 시스템 분석/설계(5편), 사례연구(4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는 총 8편의 논문 중에 사례연구, 문헌연구, 시스템 분석/설계를 각각 2편씩 발표하였다. 이렇듯 교수, 학생, 사서가 비슷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기타 연구자이다. 기타 연구자들은 시스템 분석/설계(14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순위가 사례연구(10편)로서, 이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현장의 시스템을 분석·설계하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적인 이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주제에 따라 사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는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방법분포를 분석한 후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순위별로 2순위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제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이며, 특징적인 현상은 서지학 연구는 서지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과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서베이연구를, 분류 및 색인은 사례연구를, 정보검색과 자동화 부분은 시스템 분석/설계의 연구방법을, 행정 및 경영은 문헌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경민(1993)과 정동열(1993)의 1950년대부터 1992년까지의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문헌정보학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이 일정한 틀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4. 4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 동향

자료수집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의 목적과 타당성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중에 주제와 목적에 맞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는 연구의 정당화의 문제이며 그 방법에 따라 연구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8〉은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의 연도별 추이를 나

〈표 7〉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이용순위

단위: 편(%)

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전체	1순위	2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문헌정보학일반	37	문헌	사례	2	서베이, 문헌	-
전문직	5	문헌	역사, 서베이, 사례	6	문헌	사례, 서베이, 역사
도서관사/전적사	17	계량	역사	-	-	-
저작권	2	서지	-	5	문헌	사례, 서베이
연구방법론	1	실험	-	1	계량	-
정보이론	5	문헌	서베이, 사례, 계량	6	사례	평가, 실험, 문헌
문헌정보학교육	11	문헌	서베이, 시스템	-	-	-
서지학						
체계서지학	2	역사, 서지	-	-	-	-
분석서지학	18	서지	역사	-	-	-
정보봉사 및 활동						
행정 및 경영	17	문헌	서베이, 시스템	6	문헌	사례
자료관리	4	문헌	사례, 서지	12	문헌	사례
장서개발	4	역사, 사례, 문헌, 서지	-	-	-	-
참고 정보봉사	18	서베이	문헌, 시스템	1	서베이	-
이용교육/독서지도	-	-	-	-	-	-
열람 및 대출	-	-	-	-	-	-
건물 및 비품	-	-	-	-	-	-
협동체제	11	문헌	사례	-	-	-
기타봉사 및 활동	10	사례	문헌	3	문헌	사례
정보학적 및 검색						
목록	19	서베이, 사례, 문헌	실험	11	문헌	시스템
분류 및 색인	23	시스템	사례	16	실험	평가
정보검색	31	문헌	시스템	33	실험	시스템, 평가
자동화	14	시스템	문헌	12	시스템	문헌, 평가
정보유통 및 배포	11	사례, 문헌	시스템	3	사례, 평가, 문헌	-
이용 및 이용자	22	서베이	문헌	12	서베이	평가
계량정보학	4	실험, 서베이, 문헌, 계량	-	9	계량	평가, 문헌, 사례
기타관련분야	6	사례, 시스템	역사, 서지	4	서베이	사례, 평가
계	293			142		

타내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기존자료(25.5%)를 이용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계량정보

학에서 자주 이용되는 인용문헌(19.7%), 질문

지(15.2%)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기존연구와 비교해 볼 때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이 줄어들고 인용문헌을 이용한 연구가 많아 현실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론적인 접근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자료분석 방법은 아래 <표 9>와 같다.

자료분석은 비통계적 분석이 60.2%로 가장 많았고 기술통계(22.3%), 추리통계(17.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방법 추이는 교수, 학생, 사서 등 연구자 성격과 상관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는 과거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로서 통계분석 방법이 점점 일반화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자료분석 방법 중 기술통계는 평균, 분산, 서열관계 등이며 비교적 단순한 분석에 의존되고 있다. 그러나 추리통계는 T-검증, 분산분석, 카이자승,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표 10>은 연구주제별 추리 통계분석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위 표에서 보여지듯이 추리통계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정보봉사(29.3%) 및 정보검색(26.8%) 분야이고 이용 및 이용자(17.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계기법의 사용빈도를 보면 카이자승, T-검증, 상관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연구와 비

<표 8> 자료수집방법 추이

단위: 편(%)

자료수집방법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질문지	6	4	8	11	11	40(15.2)
면접	4	3	7	-	2	16(6.1)
관찰	3	3	1	2	3	12(4.6)
기존자료	12	16	13	12	14	67(25.5)
인용문헌	18	16	16	14	14	78(19.7)
기타	10	11	10	6	13	50(19.0)
계	53	53	55	45	57	263(100.1)

* 다수의 자료수집방법을 각각 계산하여 논문의 총수와 차이가 있음.

<표 9> 연구자별 자료분석방법

단위: 편(%)

연구자	비통계적 분석	기술통계	추리통계	계(%)
교수	136	45	41	222(82.5)
학생	6	6	-	12(4.5)
사서	3	1	1	5(1.9)
기타	17	8	5	30(11.2)
계	162(60.2)	60(22.3)	47(17.5)	269(100.1)

* 공저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함으로 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표 10〉 연구주제별 추리 통계분석기법 사용빈도

단위: 편(%)

주제	T-검증	분산분석	카이자승	상관관계	회귀분석	기타분석	계(%)
문헌정보학 일반	-	-	1	1	-	-	2(2.4)
전문직	1	1	1	-	-	1	4(4.9)
정보이론	-	-	-	2	1	-	3(3.7)
문헌정보학 교육	-	-	1	-	-	1	2(2.4)
정보봉사 및 활동	6	4	2	6	5	1	24(29.3)
정보촉적 및 검색	6	2	6	2	2	4	22(26.8)
이용 및 이용자	-	2	3	3	2	4	14(17.1)
계량정보학	2	-	2	1	-	4	9(11.0)
기타관련분야	-	-	1	-	-	1	2(2.4)
계(%)	15	9	17	15	10	16	82(100.0)

* 복수기법 이용으로 전체수에 차이가 있음

교해 볼 때 정보촉적 및 검색 분야에서 추리 통계분석기법의 이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토론

지금까지 문헌정보학의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추이,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동향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정동열 1993)와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이 되는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의 양적 증가이다. 이는 연구 논문 발표 매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교수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실무진의 연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전문적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 특성을 살리는데 좀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양적으로 적으나 연구소의 책임자나 연구원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주제의 변화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단연 정보조직 및 검색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분류 및 색인'이 한 때 가장 큰 비중의 연구 분야였으나 차차 '정보검색'이 더 선호하는 주제가 되었다. 아울러 전문직이나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게나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주제의 변화는 환경적으로는 인터넷 등의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학문 내부적으로 정보학에로의 관심 집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봉사 및 활동' 영역에서 장서개발이나 이용교육/독서지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줄어든 반면 정보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및

경영 등의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좀더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제공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의 추이변화이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는 여전히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례연구, 시스템 분석/설계, 서베이 연구 등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의 여러 시스템 등을 비교·평가하고 분석·설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문헌정보학에서 이에 맞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연구에 이용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용 및 이용자 연구는 서베이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등 특정 주제는 특정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자료수집 방법의 변화이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인용문헌의 조사가 많이 증가하여 문헌중심의 연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자료를 분석하는데 통계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분석 방법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정보조직 및 검색' 분야가 기존의 '정보봉사 및 관련활동' 분야와 더불어 통계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연구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은 이론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좀더 폭넓고 실질적인 산학연 연구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유관기

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가 아닌 현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산학연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제도 그리고 연구주체의 개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검색이나 정보봉사, 경영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좀더 폭넓고 다양한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보봉사의 행정 및 경영의 경우 기존의 정보봉사를 위한 행정과 경영만을 변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경영과 행정의 관점에서 정보봉사활동의 개념을 재정의해 봄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고유분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시도가 바로 학문적 성장과 직결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연구 분야 특히,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계속 될 때 연구의 범위가 넓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이 기존의 도서관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성된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이라면 학문적 융합과 균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두 분야가 결합되었다는 것은 두 분야의 균형 발전과 상승 효과가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어떠한 연구도 두 분야에 동시에 적용되며 상호 설명하고 설명되어 짐으로써 학문적 영역이 넓어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단순한 문화결정론(cultural determinism)이나 정보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이 아닌 과학적 연구의 틀 속에서 문헌정보학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론적 개발 및 적용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좀더 다양한 연구 방법의 이해 및 적용이 요구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연구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특정 연구에 계속되는 특정 연구방법론은 문헌정보학의 전체적 이해에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다른 주제 또는 같은 주제라 할 지라도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 따라 관점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좀더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여러 분야에 적용·시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문헌정보학의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추이,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 방법별 동향,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분석을 병행하여 시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헌정보학 연구의 변화도 살펴 보았다.

대상이 되는 연구들의 조사, 비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문헌정보학 연구는 양적으

로 계속 증가되었으며, 둘째, 정보화의 영향에 따라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에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셋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분석/설계, 서베이 연구 등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상기의 변화들과 동시에 계량정보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통계기법을 이용한 방법론이 점점 증가하여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의 연구는 산학연 합동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문제해결과 이론의 현장 적용에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문이 심화되어 갈수록 좀더 폭넓은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구의 내용과 적용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좀더 다양한 연구 방법이 다양한 연구 주제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3장에서 밝혔듯이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좀더 많은 연구논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본 연구에 이어 이루어질 때,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문헌정보학 연구에 관한 연구는 시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영. 1996.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3-50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제5차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1-22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1-65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보관리학회.
- Bailey, K. D. 1994. *Method of Social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Grover, R. & J. Glazier. 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ory Building in Libraru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8, 227-242.
- Jaervelin, K. &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